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 중요성인식과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김순옥¹, 강복희^{2*}

¹신한대학교 간호학과, ²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Soon-Ok Kim¹, Bok-Hee Kang^{2*}

¹Dep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 중요도인식과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지역 소재 일개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생 231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5년 5월11일에서 6월18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습경험은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하주사 순으로 높았고, 중요성인식은 정맥요법, 근육주사, 활력징후 순으로 높았으며,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 격리실 출입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관리, 입원관리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경험은 학년,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은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습경험과 수행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전략 수립 시 학습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학습경험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earning efficacy on nursing students' self-confidence. Research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231 university students in D city,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Learning experience was high in the order of vital sign check, intramuscular injection, and subcutaneous injection. Recognition of importance was also high in the order of vein therapy, intramuscular injection, and vital sign check. Self-confidence was high in the order of vital sign check and wearing of protective equipment. As for the learning experi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tudents' school year. As for the correlation among all variants, 'learning experience of nursing skills', 'self-confidence',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effica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strategy that ensures students' education of self-efficacy and improvement of their learning experience to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Keywords :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Learning experience, Learning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Self-confidence

*Corresponding Author : Bok-Hee Kang(Daegu Health College)

Tel: +82-53-320-1468, email: esther0520@dhc.ac.kr

Received May 31, 2016

Revised (1st July 4, 2016, 2nd August 2,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은 국내의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제와 함께[1], 임상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사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2,3]. 이와 관련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에서는 간호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간호술 20개 항목을 도출하여 핵심기본간호술로 제시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은 졸업학년까지 성취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으로, 졸업 시 보장해야 할 학습성과 12가지 역량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4,5,6]. 또한 제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제시하여 졸업학년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수준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이렇듯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 판단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인 임상수행능력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8,9]. 즉, 핵심기본간호술은 일회성 관찰과 수행 실습으로 습득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라 통합적 전공지식의 적용과 기술의 숙련성이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이므로, 기본간호수행능력이 준비된 졸업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의 3개 실습교과(기본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실습, 임상실습)에 단계적으로 연계성 있게 편성하여 교육해야 한다[10]. 그러나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24개 항목의 학습경험은 기본간호실습 33.3~95.2%, 임상실습 5.0~98.2%, 시뮬레이션 실습 16.3~68.1% 수행률을 보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은 기본간호실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0]. 반면 임상실습 및 시뮬레이션, 통합실습에서는 학습경험 수준이 낮고, 수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졸업시점으로 갈수록 수행경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성취수준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국내 임상간호현장은 환자권리와 안전에 대

한 요구 등으로 간호학생들이 수행위주의 실습을 실시하지 못하고[11] 관찰위주의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내 실습교육을 통해 졸업시점에 요구되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Yoo와 Yoo(2011)는 수동적이며 반복적인 훈련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필요한 간호사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요약적인 간호술기반 단순 암기된 후 곧 소멸하게 된다고 하였다[12].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과 탐구방법을 배우고 간호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실무경험을 타당화 시키는 등 학습과정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간호업무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행자신감은 어떠한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13],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간호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지식과 실무기술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학습의 결과이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필수적인 동기유발 요인이므로 여러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14].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행자신감을 증가시켜야 한다. 한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15]. 학습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의 인지과정과 학습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16]. 이처럼 학습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한편 학습자의 목표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업수행과 학습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조절해나가는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따라서 학습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취결과나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8].

최근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학습유형과 전문직 자아개념 등의 변인이 수행자신감에 영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5][19]. 그러나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성취수준을 졸업시점까지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핵심술기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된다. 또 Dillon(2002)은 간호학생은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이나 자신감이 상승하고,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수행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내 통합실습수업을 통해 실제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과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중 어떤 변인이 수행자신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 또 자기주도적 학습의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변인인 학습경험과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 학습경험과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D지역 소재 일개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 이면서 통합실습 수업을 주당 1학점, 2시수를 수강하고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로 편의 추출하였다. 또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진행 내용 및 서면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회귀분석을 위해 설명변수의 수가 15개일 때,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1-\beta$)=0.95, 중간효과크기=0.15를 기준으로 최소 220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회수 및 부적절한 작성 등으로 인해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설문지 등을 10% 정도로 고려하여 표본수를 240부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40부 설문지를 배부하여 전수 회수하였으며, 불충분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23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11일에서 6월18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참여는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비밀보장과 함께 설문도중 언제든지 연구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 후 연구동의서와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은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자 중 1명이 직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s)

핵심기본간호술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임상현장에서의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개 항목을 말한다[6].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학 교수 및 현장실무자 검토를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도구이다[21].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은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을 교내 통합실습수업에서 교수가 핵심기본간호술 시범보이는 것을 관찰한 후 본인이 직접 준비, 시행, 정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1개월 동안 각 항목당 수행한 빈도를 의미한다. 수행 빈도는 각 해당항목의 간호술을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자주(거의 매일)’ 수행은 5점, ‘월 10회’ 4점, ‘월 5-9회’ 3점, ‘월 1-4회’ 2점, ‘전혀하지 않음’을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5 이다.

2.3.2 중요성인식(Recognition of importance)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학 교수 및 현장실무자 검토를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도구이다[21]. 핵심기본간호술 중요성 인식은 간호학생들이 20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신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지에 대해 5 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매우 중요하다’ 5점, ‘중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7 이다.

2.3.3 학습 자기효능감(Motivation to learn)

학습 자기효능감은 Ayres(2005)[22]가 개발하고 Park[23]이 번안한 도구로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 이 도구는 총10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likert scale 이었으나, Kim과 Kim(2014)[16]이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 자기효능감 총점의 범위는 5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4였으며 본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3 이다

2.3.4 수행자신감(Self-confidence)

수행자신감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하는 자신의 지식과 실무기술에 대한 주관적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24], Han 등(2014)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을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10].

‘능숙하게 할 수 있다’ 5점 ‘잘 할 수 있다’ 4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3점, ‘미숙하지만 할 수 있다’ 2점, ‘전혀 못하겠다’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9 이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참석한 대상자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 중요성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행자신감 비교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의 다중비교방법을 이용하였다.
- 4)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분석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문지 배포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참여는 자유의사이며,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과,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04명(88.3%), 남학생 27명(11.7%)명으로 대부분 여학생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131명(56.7%)으로 많았으며, 3학년 119명(51.5%), 4학년이 112명(48.5%) 차지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89명(38.5%), 보통이다 84명(38.5%)을 나타냈다 [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31)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27(11.6)
	Female	204(88.4)
Religion	Christianity	38(16.5)
	Catholicism	14(6.1)
	Buddhism	44(19.0)
	No religion	131(56.7)
	Other	4(1.7)
Grade	3 rd grade	119(51.5)
	4 th grade	112(48.5)
Incentives to select nursing	Interest and character	166(71.9)
	Recommendation of around	50(21.6)
	Chance of service	3(1.3)
	High school grades	12(5.2)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action	24(10.4)
	A little satisfaction	89(38.5)
	Normal	84(36.4)
	A little dissatisfied	30(13.0)
	Very disappointed	4(1.7)
Satisfaction of major clinical practicum	Very satisfaction	16(6.9)
	A little satisfaction	91(39.4)
	Normal	90(39.0)
	A little dissatisfied	26(11.3)
	Very disappointed	8(3.5)

3.2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대상자의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을 살펴보면 학습경험 2.84±0.80점, 중요성인식 4.04±0.54점, 학습 자기효능감 3.01±0.12점, 수행자신감 3.75±0.8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핵심기본간호술기별로 살펴보면 학습경험은 활력징후(3.68±1.07), 근육주사(3.03±2.23), 피하주사(3.02±0.99) 순으로 많이 경험을 하였고, 중요성인식은 정맥주사(4.81±0.63), 근육주사(4.17±1.03), 활력징후(4.13±1.33)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4.47±0.75), 격리실 출입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관리(4.07±0.82) 입원관리하기(4.06±0.8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31)

Variables	M±SD	Range
Learning experiences	2.84±0.80	1.15 ~ 5.00
Recognition of importance	4.04±0.54	2.50 ~ 5.00
Learning self-efficacy	3.01±0.12	2.70 ~ 4.20
Self-confidence	3.75±0.89	1.95 ~ 5.00

Table 3. Learning experiences, Recognition of importance, Self-confidence by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N=231)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Learning Experiences	Priority	Recognition of Importance	Priority	Self-Confidence	Priority
	M±SD		M±SD		M±SD	
Vital sign check	3.68±1.07	1	4.13±1.33	3	4.47±0.75	1
Oral medication	2.69±0.97	18	2.98±1.49	9	4.03±0.87	4
Intramuscular injection	3.03±2.23	2	4.17±1.03	2	3.74±0.94	11
Subcutaneous injection	3.02±0.99	3	3.50±1.16	5	3.86±0.89	6
Intradermal injection	2.75±1.05	14	3.37±1.17	7	3.63±0.93	15
Intravascular injection	2.98±1.09	4	4.81±0.63	1	3.51±1.03	17
Transfusion	2.63±1.10	19	3.53±1.31	4	3.24±1.06	20
Intermittent tube feeding	2.81±0.97	10	2.61±1.16	13	3.77±0.91	9
Simple catheterization	2.83±1.06	9	3.09±1.09	8	3.65±0.92	13
Indwelling catheterization	2.90±1.09	6	3.41±1.18	6	3.56±0.99	16
Cleansing enema	2.71±1.05	17	2.35±1.09	17	3.66±0.97	12
Preoperative care	2.74±1.00	15	2.89±1.26	10	3.79±0.94	8
Postoperative care	2.71±1.00	16	2.80±1.24	12	3.76±1.03	10
Management admission	2.78±1.080	11	2.14±1.35	19	4.06±0.85	3
Protection equipment for quarantine room & waste disposal	2.85±1.06	8	1.93±1.21	20	4.07±0.82	2
Pulse oxymeter check & EKG monitor apply	2.77±1.04	12	2.45±1.20	15	3.80±0.99	7
Oxygenation (nasal cannular)	2.88±1.01	7	2.30±1.10	18	4.02±0.87	5
Endotracheal suction	2.90±1.06	5	2.88±1.24	11	3.64±0.96	14
Tracheostomy care	2.77±1.11	13	2.54±1.23	14	3.32±1.06	19
Bas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defibrillator apply	2.42±1.24	20	2.42±1.47	16	3.33±1.35	18

3.3 일반적특성에 따른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습경험은 학년($t=4.74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성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F=5.801, p<.001$)와 실습만족도($F=9.080, p<.001$), 수행자신감은 전공만족도($F=2.942, p=0.21$)와 실습만족도($F=3.440,$

$p=0.09$)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학습경험과 수행자신감($r=.446, p<.001$),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r=.456,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Differences of Learning experiences, Recognition of importance, Learning self-efficacy, Self-confi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haracteristics	Learning experiences	t / F (p)	Recognition of importance	t / F (p)	Learning self-efficacy	t / F (p)	Self-confidence	t / F (p)
		M ± SD	(Scheffe)	M ± SD	(Scheffe)	M ± SD	(Scheffe)	M ± SD	(Scheffe)
Gender	Male	2.86±0.86	.646 (.143)	3.00±0.06	-.520 (.604)	3.93±0.68	-1.082 (.280)	3.95±0.77	1.674 (.095)
	Female	2.84±0.80		3.02±0.13		4.05±0.52		3.72±0.67	
Religion	Christian	2.68±0.86	.839 (.502)	3.03±0.20	.384 (.820)	3.97±0.51	1.065 (.375)	3.71±0.71	.498 (.738)
	Catholic	3.10±0.82		3.01±0.83		4.18±0.46		3.92±0.71	
	Buddhism	2.91±0.79		3.00±0.36		3.92±0.57		3.78±0.68	
	Other	2.72±0.69		3.00±0.00		4.15±0.83		4.03±0.73	
	None	2.84±0.79		3.02±0.12		4.07±0.53		3.71±0.68	
Incentives to select nursing	Interest and character	2.88±0.80	0.801 (.494)	3.12±0.11	0.030 (.993)	4.02±0.54	0.129 (.943)	3.76±0.69	0.446 (.720)
	Recommendation of around	2.77±0.84		3.02±0.18		4.06±0.58		3.73±0.68	
	Chance of service	2.40±0.84		3.00±0.00		3.90±0.92		3.92±0.24	
	High school grades	2.66±0.65		3.01±0.29		4.08±0.33		3.55±0.72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disappointed ^a	2.64±0.57	1.735 (.143)	2.92±0.15	1.630 (.167)	3.38±0.22	5.801 (<.001) e>a,b,c,d	3.04±0.84	2.942 (.021)
	A little dissatisfied ^b	2.63±0.84		3.00±0.60		3.94±0.62		3.54±0.80	
	Normal ^c	2.90±0.80		3.03±0.19		3.93±0.55		3.74±0.70	
	A little satisfaction ^d	2.78±0.73		3.01±0.48		4.10±0.47		3.78±0.61	
	Very satisfaction ^e	3.15±0.97		3.00±0.41		4.38±0.44		4.04±0.59	
Grade	3 rd grade	2.61±0.64	-4.743 (<.001)	3.02±0.17	.213 (.153)	3.95±0.59	-2.462 (.054)	3.44±0.62	-7.794 (.649)
	4 th grade	3.09±0.88		3.01±0.53		4.12±0.47		4.07±0.60	
Satisfaction of major clinical practicum	Very disappointed ^a	2.54±0.52	1.796 (.131)	3.13±0.45	2.008 (.094)	3.70±0.39	9.080 (<.001) e>a,b,c,d	3.34±0.66	3.440 (.009)
	A little dissatisfied ^b	2.67±0.56		2.99±0.68		3.78±0.63		3.53±0.84	
	Normal ^c	2.75±0.78		3.02±0.13		3.92±0.55		3.65±0.65	
	A little satisfaction ^d	2.98±0.88		3.00±0.44		4.16±0.45		3.90±0.66	
	Very satisfaction ^e	3.04±0.74		3.02±0.73		4.54±0.37		3.94±0.60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31)

Variables	Self - confid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Learning self-efficacy	Learning experiences
Self-confidence	1			
Recognition of importance	-.046 (p=.485)	1		
Learning self-efficacy	.456** (p<.001)	.053 (p=.426)	1	
Learning experiences	.446** (p<.001)	-.054 (p=.410)	.128 (p=.051)	1

*p<.01, **p<.001

3.5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 요인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성 분석을 시행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94~0.984으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17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고, Dubin-Watson 상관계수가 1.636을 나타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고, 잔차의 정규분포 성이나 등분상성의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상에서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64.45, p<.001), 결정계수는 .361였고, 수정된 결정계수는 .356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5.6%였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Self-confidence

(N=23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707	.290		2.442	.015
Learning experiences	.337	.046	.394	7.389	<.001
Learning self-efficacy	.516	.068	.406	7.599	<.001

R²=36.1, Adj. R²=35.6, F=64.4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학습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중요성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20개 핵심기본간호술 각 항목을 학습한 경험은 평균 2.84회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실습 수업이 주당 1학점 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습경험이 높은 항목은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하주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내주사 순[10], Kim 등(2011)의 연구에서 활력징후, 투약, 감염관리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부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25].

핵심기본간호술 중요성 인식은 4.04점으로 나타나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c 등(2012)의 연구에서 4.6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았다[5]. Bac 등(2012)의 연구대상자들은 12개 학습성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성과 문항을 파악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제 2주기 간호교육인 중평가 지표인 ‘6.1.2.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항목에 대비하여 술기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지표보다 훨씬 더 높게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유추된다[5]. 간호학생들이 간호대학 졸업 시 임상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술기 항목은 정맥주사, 근육주사, 활력징후 순이었다. Chang 등(2015)의 연구에서는 경구투약,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링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부분 차이가 있었다[26]. Chang 등(201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투약수행의 빈도가 많고, 또 투약이 간호업무에서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26]. 반면, 본 연구대상자는 간호학생으로 정맥주사는 수행절차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술기로, 기본간호실습단계의 수행만으로 습득되기 어려운 간호술이라 반복적인 연습을 실시하면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활력징후는 환자간호에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정내용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서, 간호사의 주요업무일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 간호사로 부터 97.9%로 가장 많이 위임받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9]. 반대로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입원관리하기, 비강케를라를 통한 산소공급 순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 수혈, 입원관리하기

등으로 나타난 Han 등(2014)의 연구와 일부분 유사하였다[10].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 자기효능감은 3.01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Lee 등(2015)의 연구에서 3.9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고[15], Jho(2014)의 연구에서 2.92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27]. Lee 등(2015)의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4학년 학생이고[15], 본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학년 51.5%로 4학년 48.5%보다 높고, Jho(2014)의 연구에서는 3학년 학생이라, 4학년이 3학년보다 학습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7]. 즉, 4학년이 3학년보다 실습경험이 많으므로 학습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맥락이 일치한다[19].

수행자신감은 3.75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Lee 등(2015)의 연구 2.96점보다 자신감이 더 높았다. 이는 제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비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4].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인 항목은 활력징후로 나타났고, 다음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입원관리하기, 경구투약, 비강캐놀라를 통한 산소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활력징후가 가장 높았고, 다음 산소포화도, 경구투약,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10], 신규졸업간호사 대상 Kim 등(2014) 연구에서 활력징후, 경구투약, 수술 전 간호, 피하주사, 입원관리하기 순으로 나타나 간호학생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활력징후를 가장 자신감이 있는 술기로 생각하고 있었다[27]. 활력징후는 자체항목 외에도 수혈요법, 입원관리하기의 수행절차에 포함되어 있어 반복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시 위임을 통해 실제 대상자들에게 수행해보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서도 관찰학습에 그치지 말고 직접 대상자에게 수행을 통한 실습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자신감이 낮은 항목은 수혈, 기관절개관 관리,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정맥주사, 유치도뇨 순으로 나타났다. Han 등(2014)의 연구에서 수행자신감이 낮은 항목은 수혈, 관장, 도뇨, 기관절개관 관리,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난이도가 상인 항목에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므로 난이도 상, 중, 하

에 따라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난이도에 따른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경험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선행연구[19,28]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4학년이 3학년보다 교육기간이 1년 더 길어 교내의 실습 경험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존연구[14,19]에서 전공에 만족할수록 성취동기를 증진시켜 기본간호수기술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커진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임상실습병원에서의 실습지도 만족도가 높을수록[29], 학교생활 및 실습에 적극적인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Park과 Lee(2008)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한다[8]. 실습만족도는 내부 및 외부 실습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인지적 능력이 보다 더 자유롭게 발휘되기 때문에 실습만족도가 높을 경우 학습한 내용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외부 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학습경험과 수행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은 Kim(2003)의 연구에서 기본간호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향상되고[30],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31].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핵심술기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기본간호실습 부터 교수자가 술기행위를 일대일로 관찰, 평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간호술기는 효과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술기능력에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Simulation),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임상수행능력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등[21] 다양한 실습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실습은 간호수기술 실습,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은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학습방법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독립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며, 학생들에게 새

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간호기술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12]. 또한 학습자 본인이 자기성찰을 통하여 본인의 강점과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게 한다고 알려졌다[32]. 그러므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전략으로 학생 스스로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또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 (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15],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주어진 학습과제의 수행과정 동안 문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33].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학습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Park과 Lee(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8], 학습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지식을 실질적 수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노력의 투입을 결정하여 학습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34], 문제해결능력[35], 학업성취[36]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ho(201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는데, Bandura(1982)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즉,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상태 요인 4가지 중 학생들의 과거 삶 속에서의 수행 실패와 관찰위주의 임상실습 등으로 인해 성취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27].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취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며, 교내에서 시뮬레이션, 임상수행능력 평가 등을 통한 실습과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실습경험을 통해 성취경험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행자신감에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경험이 차지하였다.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행자신감이 높았고[10],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1]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핵

심기본간호술은 술기위주의 간호행위이므로 반복연습과 수행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에서의 현실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비율이 졸업시점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실정이고, 임상실습에서는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 상승 등으로 주로 관찰위주의 실습에 그치고 있으며,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운영 내용과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학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2학년부턴 4학년 졸업시점까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통합실습 등의 교과과정과 다양한 비교과과정 훈련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고 본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도 증가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수행이 강조되면서, 간호대학생은 신입간호사 진입 시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졸업시점까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역량에 학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학습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방안을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교과목 교내수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내용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분석에 한계점이 있음을 제시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학습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중요성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은 2.84점, 중요성 인식 4.04점, 학습 자기효능감 3.01점, 수행자신감 3.75점으로 모든 변인이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기별 학습경험은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

하주사 순으로 나타났고, 중요성인식은 정맥주사, 근육 주사, 활력징후, 수행 자신감은 활력징후, 격리실 출입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관리, 입원관리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경험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중요성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은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생의 학습경험과 학습 자기효능감은 수행자신감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학습경험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20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의 난이도별, 학년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E. J. Lee, W. H. Jun,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163-171,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63>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e core competency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Retrieved September 3, 2013, from: <http://www.kabon.or.kr>, 2014.
- [3] I. S. Seo, S. M. Oh, H. O. Park, R. W. Ma,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i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276-228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2276>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Specify the colleges four-year term of study screening, Retrieved January 20, 2014, from: <http://www.kabon.or.kr>, 2014.
- [5] S. H. Bae, J. S. Park,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pp. 203-214,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2.203>
-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a, Core clinical nursing skill evaluation items for Korea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Retrieved May 20, 2013, from or.kr/HyAdmin/upload/good File/120130201102332, 2013.
- [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b,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second edition 2012,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Retrieved May 20, 2013, from <http://kabon.or.kr/kabon02/120120319133351>.
- [8] S. N. Park, S. K. Lee,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Nursing*, vol. 15, no. 1, pp. 6-13, 2008.
- [9]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o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no. 2, pp. 364-371, 1998.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10] A. K. Han, D. S. Cho, J. S. Wo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2, pp. 162-173, 2014.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2.162>
- [11] H. K. Hur, S. M. Park, Y. H. Shin, Y. M. Lim, G. Y. Kim, K. K. Kim, H. O. Choi, J. H. Choi,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evaluation of an emergent care management simulation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28-240,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28>
- [12] M. S. Yoo, I. Y. Yoo,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ed patient managed instruction for a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vol. 10, no. 1, pp. 89-109, 2011.
- [13] H. J. Yeo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5, pp. 2595-2607, 2010.
- [14] E. J. Shin,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pp. 380-386, 2008.
- [15] I. S. Lee, C. S. Park, "Factor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2, no. 3, pp. 297-307, 2015.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5.22.3.297>
- [16] S. O. Kim, H. S. Kim,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using simulated pati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arn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learning",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2, pp. 396-408, 2012.
- [17] S. R. Song, "The effect of self-evaluation method using video recording on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 shin Women' University, 2013.
- [18] Y. H. Lee,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on school-related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2011.
- [19] H. Y. Jin., K. Y. Park, K. Y. Park, M. J. Kim, Y. O. Yang, "Factors influencing the confidence on

-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pp. 2611-2622, 2012.
- [20] P. Dillon, “The cognitive, competence and confidence development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over an academic year with clinical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Widener University, 2002.
- [21] J. S. Park, “Simulation evaluation of nursing practice through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research report, 2011.
- [22] H. 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University, 2005.
- [23] S. Y. Park,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12.
- [24] M. Aoyama, Y. Tamura, Y. Ishikawa, M. Yada, I. Miyawaki. “Confidence-weighted testing: A descriptive study of Japanese nursing students”,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 15, pp. 504-509, 2013.
DOI: <http://dx.doi.org/10.1111/nhs.12066>
- [25] K. Kim, S. O. Chang, H. S. Kang, K. S. Kim, J. I. Kim, H. Kim, J. H. Park, M.R. Eom, M. S. Youn, O. Lee, J. S. Won, “Content and educational needs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pp. 506-519, 2011.
- [26] E. H. Chang, M. H. Mo, E. H. Choi, “A comparative study on perceived importance and frequency of core nursing skills between general and special war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264-1272,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264>
- [27] M. Y. Jho,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3, pp. 292-301, 2014.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3.292>
- [28] S. A. Yong, M. G. Kim, S. B. Kim, Y. O. Jeong, J. H. Ahn, Y. B. Jeon, “Performance competence confid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5, pp. 159-160, 2015.
- [29] Y. H. Kim, S. Y. Hwang, A. Y. Lee,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37-46,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37>
- [30] M. W. Kim,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3.
- [31] D. W. Choi,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184-191,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184>
- [32] Violato C, Lockyer J, “Self and peer assessment of pediatricians, psychiatrists and medicine specialists: implications for self-directed learning”,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vol. 11, pp. 235-244, 2006.
DOI: <http://dx.doi.org/10.1007/s10459-005-5639-0>
- [33] D. H. Schunk,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Differential effect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5, pp. 848-856,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75.6.848>
- [34]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 no. 4, pp. 191-215, 1977.
- [35] M. h. Shin,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problem-solving ability between students with high level of self-efficacy and students with low level of self-efficacy 19, 2,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vol. 12, no. 4, pp. 30-37, 2009.
- [36] J. C. Ba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in relations of adolescents’ learning motiv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1.

김 순 옥(Soon-Ok Kim)

[정회원]



- 1992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1년 10월 ~ 2012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2년 9월 ~ 2014년 2월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과학 및 교육컨텐츠 개발

강 복 희(Bok-Hee ka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0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1979년 12월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관심분야>

사회과학 및 교육컨텐츠 개발